

영국 정부, 150만 호 달성 위해 계획 시스템 개혁과 현대적 건설방식(MMC) 확산 방안 발표

해당국가	영국	기관(기업)	영국 주택부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건축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

□ 영국 주택 정책은 복잡한 계획 허가 절차와 건설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 시스템 개혁과 현대적 건설방식(MMC) 확산을 중심으로 한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으로 전환

- 영국 정부는 2025년 12월 150만 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계획정책체계(NPPF)* 개정과 MMC** 확산을 핵심 정책 수단으로 제시

* 영국 정부가 수립한 국가 도시계획 정책 지침으로 주택·산업·인프라 개발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과 개발 허가 기준을 제시하는 최상위 계획 정책 체계

** 공장 제작과 디지털 설계를 활용하여 건설 생산성을 높이는 현대적 건설방식의 총칭으로 모듈러 건축·프리패브 구조·오프사이트 건설(OSC) 등을 포함하는 산업화된 건설 기술을 의미

- 신규 철도 노선 주변 고밀도 개발을 통해 향후 최대 180만 호 추가 공급 잠재력을 확보하고, 기준을 충족하는 개발 사업은 계획 승인 이후 착공까지 절차를 단순화하는 규칙 기반 체계 구축
- 이번 NPPF 개정은 10년 만의 최대 계획 정책 개편으로 지방의회 주택 공급 목표 상향과 개발 허가 지연 요인 제거를 추진

- 영국 정부는 지방당국과 협력하여 MMC 기반 표준 주택 설계를 개발하고, 제조업체들이 현대식 공장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

- 브리스톨·셰필드·런던 루이삼 지역에 소규모 부지 통합 지원 플랫폼을 시범 운영하고 중소 건설사에게 £500만(약 86억 원)을 추가 지원하여 브라운필드 부지 60곳을 사회주택으로 전환
- 현대식 공장에서 주요 공정을 사전 시공한 후 현장에서 7~12일 내 조립하는 OSC 방식을 통해 전통 공법 대비 최대 30% 빠른 시공과 높은 품질 관리 구현

□ 영국 OSC 정책은 계획 허가 병목 해소와 건설 인력 확충을 병행하여 MMC 기반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·금융·기술 기반을 강화

- 「계획 및 인프라 법안」을 통해 교통 허브 인근 주택 개발에 기본 허가 권한을 부여하고 소규모 사업은 신속 승인 체계로 전환

- NPPF 개혁만으로도 OBR은 GDP 기여 £68억(약 1조 1,700억 원)을 전망
- 기술 검토 반복 절차를 폐지하고 승인 이후 절차를 간소화하여 착공 기간 단축

- 국가주택은행 설립과 함께 £160억(약 2조 7,500억 원) 공공 자본으로 £530억(약 9조 1,200억 원) 민간 투자 유인 체계 구축

- 중소 규모 건설 기업 대상 금융 지원을 통해 연간 완공 물량을 2025년 4만 호에서 2030년 8만 호로 확대
- MMC 공개 사양서(PAS, Publicly Available Specification)*를 통해 보험·보증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품질 신뢰 기반 구축

* 영국 표준기관인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(BSI)이 산업계와 정부 협력을 통해 제정하는 공개 기술 규격으로, MMC 방식 건축물의 설계·생산·시공 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한 기술 문서

※ 출처 : GOV.UK(2025.12.16), Housing Sec pledges to 'go further than ever before' to hit 1.5 million homes